

지역 소식통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보고회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청정 고창갯벌을 테마로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 기반을 조성으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군은 11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에 앞서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약 71억 원을 투입해 살아 숨 쉬는 해양생태환경 조성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심원면 두어리 일원 폐축제식 양식장에 '친환경 고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시행했다.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은 복원된 부지 중 40ha면적에 자연천이 된 칠면초, 통통마디, 개개미취, 나문재 등 염생식물을 이용해 철새 등 조류생태, 먹이 활동 공간, 저서동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는 2019년 까지 35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강산명주 오남진 사장
법무부장관 표창

부안 강산명주 오남진 사장이 지난 7일 법무부 법사량위원 정읍지역연합회가 주관하고 전주지방 검찰청 정읍지원, 정읍시·부안군·고창군이 후원하는 '2017 법사량위원 한마음대회'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오 사장은 지난 2011년 법사량 부안지구 위원으로 가입해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보호관찰, 갱생보호, 범죄예방활동 및 부안 관내 청소년 선도는 물론 불우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 취약계층 돕기에 왕성히 활동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한마음 체육대회 열려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제12회 자원봉사자 대화와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지난 8일 정읍실내체육관에서 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자원봉사자대회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정읍자원봉사센터가 2017 우수프로그램부문 최우수상장을 수상한 것과 관련, 김생기 시장이 전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위안부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고창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열어... 소녀상 고창군에 기부채납 예정

고창 평화의 소녀상 건립군민추진위원회가 지난 10일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 회단체장, 위안부 피해 어르신과 가족,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 평화의 소녀상 건립군민추진위원회(이하 건립군민추진위)는 지난 8월 30일 출범식을 가진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물론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고창군민의 평화의지의 상징물로서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평화화비회원 가입회비가 8000여만원에 달하며 당초 목표액이었던 7000만원을 초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고창 평화화비회원은 개인, 가족, 기관 및 단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11월 30일 최종 집계결과 개인 회원 472명, 가족회원 467가족(1,877명), 기관단체회원 156곳이 소녀상 건립에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11월 2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모양상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득했으며, 이어 11월 28일 고창군 기념비등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는 마무리 됐다. 제막식을 성황리에 마친 건립군민추진위는 향후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를 거쳐 소녀상을 고창군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고창 평화의 소녀상 건립군민추진위원회가 지난 10일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지금까지 건립군민추진위는 출범식 이후 평화화비회원 모집활동뿐 아니라, △영화제 개회(11/3), △문예작품전(10/25~11/25), △모양상제 입체카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렸다.

또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한 달여간 '고창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념 문예작품 공모전'이 진행됐으며 시상식은 제막식과 함께 열렸다. 이번 공모전에 지역 초·중·고 학생 작품 300여편의 작품이 제출된 가운데 산문과 시 부문에 초중고 총 24명에 대한 시상식 진행됐으며 대상은 △도교육감상, 최우수상은 △고창군수상, 우수상은 △고창교육장상, 장려상은 △한국예총 고창군지부장상이 수여됐다.

소녀상 추진위 사무국장으로 소녀상 건립의 실무를 맡고 있는 김성수 세

무사는 "고창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국가가 힘이 없어 당해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다짐이며,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역사교육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며 "많은 군민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소녀상이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속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뜻을 모아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이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총력'

시 관계자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해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홍보 강화와 함께 양성과 축진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적법화 기한이 오는 2018년 3월 24일로 종료된다. 기한 종료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의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예고돼 있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개정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내 농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축산관련 협회와 단체를 통한 홍보 강화는 물론 관련 단체 간담회와 적법화 추진 방법을 교육했고, 민원실 내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정읍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이행 강제금 일부 감면 혜택과 함께 정읍지역 건축 설계사와 간담회를 갖고 설계비를 저렴하게 해주도록 협조도 구했다.

정읍에는 모두 816개소의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현재 233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 28.5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기한이 끝난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는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용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사법처분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범죄피해자에 따뜻한 관심을”

부안경찰서-부안마케팅,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역 사회 선도기업인 부안마케팅 영농조합법인(대표 임장삼)과 부안지역 범죄피해자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경제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범죄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과 지역 선도기업이 연대하여 범죄피해자 및 사회 소외계층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을 계기로 부안마케팅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전북경찰청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연계 추진 중인 언더하기 프로그램에 향후 3년 간 매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정 기부하여 부안지역 범죄피해자 등 소외계층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민 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적극 연대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더하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선도기업 및 후원단체의 지정기부를 통하여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제도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보건소, 은초록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은초록 어르신 건강교실(이하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8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했다.

어르신 건강교실은 운동과 영양, 비만 등과 관련한 교육을 통해 어르신 개인의 건강 습관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소는 정읍을 3권역으로 분류해 매일 첫째 주 금요일에 운영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심뇌혈관 질환 건강강좌를 비롯 노태교실, 웃음치료 등 다양하게 운영됐다.

보건소는 최근 어르신 건강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일반 현황 2분항, 만족도 6분항의 만족도 관련 질문으로 실시한 조사에는 117명이 응답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들의 92%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5.7%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명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명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명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참봉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E | 375ml 2ea/13%

부안강산 명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